

리버데일 한의원

한 의사 : 임 베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 796-0267 / 3636

맥 한의원

한 의사 : 김 글라라
침, 한약으로 만성병 치료
224E 204St Bronx
(718) 563-1209

이준승치과

Medicaid Accepted
503 S Broadway #250
Yonkers NY 10705
(914) 376-4033

뉴저지동해수산

EastSeafood Restaurant
445 Gran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461-4447

뉴욕라이프보험

김 여경 (헤레나)
(203) 629-0266 (O)
각종 보험, 투자

리사 휴대폰

국내무제한, 한국 5시간
월 40\$ (세금포함)
(718) 205-1200 Kim

중앙 장의사

하 봉 호
(718) 353-2424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 Rental
Mija (세실리아) Son
(914) 310-6990 (C)

C2 EDUCATION

142 N Central Ave
(914) 946-2324
(914) 946-2324

통증, 중재의학

이한식 제통전문병원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 통증
(718) 224-1600
140-21 32 Ave Flushing NY

아리랑 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표 : 김 윤 환 (Francisco)
영 희 (Julie)
엠펙아어스테이트빌딩 #22층
1-212-563-3350
1-800-223-6225

김태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 W 32 St.
Suite 300 맨 하 탄 (212)
947-8382 (B) 뉴저지 (201)
592-5514 (H)

Edward D. Jamis, Jr. 장 의 사

조용하고 주차, 교통편리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718) 224-2390
(888) 224-6088

정일현 (스테판노) 지과

콜롬비아 지과대학교 졸업
엘름hurst (시립병원 앞)
(718) 426-4343, (주자은비)
베이사이드 718-352-3434

HOPE AGENCY INC.

희망 보험사
가게, 빌딩, 주택, 자동차
트럭, 벤, 생명, 교육, 은퇴
(718) 961-5000 김 모세

First American Landing

부동산 매매에서 모기지
대출까지 주택상가 사업
채) 정영오 루가
201-461-9999
917-232-8890

김진상 3S 교정치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 뉴욕, 플러싱 : (718) 460-1802
◎ 북부 NJ : (201) 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 진상 (빈센트)

김철 공인 회계사

Young & Jullian, LLC
150-05 노던 (150가)
2F1 (플러싱)
(718) 888-1217

컴퓨터 출장수리

감시카메라/인터넷
전화설치/수리
이홍석 (사도요한)
(201) 336-2522

핑크 미용실

매주 일요일 (주일)은 쉽니다.
3135 Grand Concourse
(between 204 & 205 St.)
Tel. (718) 563-6997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월-금 8:00 AM-4:30 PM
토 3:00 PM-8:00 PM
일 9:00 AM-2:00 PM
(718) 353-7676
144-19 33rd Ave. Flushing, NY 11354

센츄럴 헤어살롱

(구 브롱스소망이발관)
남, 여 이발 및 미용
747 센츄럴 파크 (100번도로)
(914) 725-0747

김영관 회계사무소

● 개인 / 법인 세무 보고
면 회자 설립 사업허
공증, 번역 종업원상해
(718) 961-4024 (2)

뉴욕정비 (브롱스)

2801 Webster
(718) 295-3252

제 1691호

2011, 12, 4

북부 뉴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마르코 1, 1 - 8)

주임 신부 : 남 시몬 (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 (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 (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 (본미사), 12시 30분 (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 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 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 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 (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707-3182

Fax : (718) 405-0053



대림 제2주일

ㄹ 입당송 (이사 30,19.30)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대영광송 없음>

ㄹ 제1독서

(너희는 주님의 길을 닦아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0,1-5,9-11)

- 1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 너희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2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췌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 3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곧게 내어라. 4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5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 6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고 말하여라. 10 보라,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펼치며 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 11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화답송 (시편 85(84),9ㄱ-ㄴ과 10.11-12.13-14(◎ 8))

◎ 주님, 저희에게 자애와 구원을 베푸소서.

1.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2.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3.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ㄹ 제2독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2서의 말씀입니다. (3,8-14)

- 8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9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 10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스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 11 이렇게 모든 것이 스러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12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싸여 스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 버릴 것입니다. 13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복음 환호송 (루카 3,4.6)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ㄹ 복 음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8)

- 1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2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3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4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5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6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7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영성제송

(바룩 5,5; 4,36)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전례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12/ 4 8시	주일학교	주일학교	주일학교	주일학교
11시	이 상식	김 형남	김 여경	이 영자
12/11 8시	김 철중	김 부균	방 경숙	김 미수
11시	최 일환	양 명상	양 정남	최 금연

복 사 : 김 성준 & 박 지성 엄 수연 & 김크리스티나
 봉헌자 : 주일학교&민중기 가족 다음주 : 최고남&최충규 가족
 헌금봉사 : 바다의 별 Pr 다음주 : 상지의 옥좌 Pr
 운전봉사 : 조 영미 다음주 : 김 승우
 본당 밴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 (1호차 - 9 : 00 출발)
 Grand Concourse (옛 성당 건너편) - 9 : 00 출발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양발바라 생신축하(생미사) : 앙스테파노[효상] 가족봉헌
 양발바라(생미사) : 양다니엘[명상] 가족봉헌
 자녀들을 위한(생미사) : 박다니엘[경룡], 박아네스 봉헌

아버님(연미사) : 이바오로[재용] 가족봉헌
 한재용(연미사) : 한빅토리노[성천] 가족봉헌
 윤성출(연미사) : 한빅토리노[성천] 가족봉헌
 허스테파노[문호](연미사) : 허미자 가족 봉헌
 윤멜리디나(연미사) : 윤안토니오[광석] 가족봉헌

성가

입당 : 임 하소서 임마누엘 (성가 93)
 봉헌 : 요르단 강에서 (성가 481)
 성체 :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성가 177)
 파견 : 주 하느님 자비로이 (성가 89)



교회 소식

(1) 대림절 시작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새해가 시작 되었습니다.
 내 자신과 주위를 되돌아보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우리 모두 Christmas Tree(크리스마스트리)를 준비합시다.

(2) 대림절 피정

이번 주 6일(화) - 7일(수) 이틀간 이 창향(세바스찬) 신부님을 모시고 저녁8시부터 (8:30분 강의) 본당에서 강의를 있습니다.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여 성탄 준비를 합시다.

(3) 합동 판공성사

합동 판공성사를 12월20일(화) 저녁7시-10시까지 여러 신부님을 모시고 실시합니다.
 ※ 성사표가 입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되시는 분은 온 가족이 빠짐없이 성사를 볼수 있도록 성사 표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4) 성탄절

- ㉠ 전야 대미사 : 24일(토) 저녁9시 에 있으며 성탄의 신비가 이 미사 중에 모두 이루어집니다. 아기예수님이 탄생한 말구유 축성과 크리스마스 트리점화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 분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 ㉡ 세례성사 : 24일 저녁8시에 영세식이 있습니다. 대부 대모 되시는 분은 미리 대자녀를 만나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성탄 낮 미사 : 25일(주일) 낮11시에 있습니다. 미사 후 성탄파티와 주일학교 학생들의 성탄 예술제 가 있습니다.

(5) 성탄절 제대 꽃 봉헌

성탄 대축일 제대에 꽃을 봉헌하실 분은 제대회장 김 모니카 자매님
이나 사무실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화분1개 10불)

(6) 레지오 마리아 연차 총 친목회

레지오 마리아 연차 총 친목회가 다음주 11일(주일) 11시미사후 친 교실
에서 있습니다.

(7) 한글학교 소식

한글학교 학부모 미팅이 다음주 11일(주일) 센타 202호실에서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교장 : 이종숙(수산나) 교사 : 최금연(엔그라시아), 진경란(모니카)
윤현숙(논나), 김종철(사도요한), 추인숙(가타리나)

(8) 빈센시오회 소식

우리주위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도와 드리고저 합니다.

추천 하실 분은 빈센시오회 나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 본당 모임

- 대건회 월례회의가 오늘(주일) 11시미사후 센타 202호실에서
있습니다. 대건회원분들의 전원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연령회 모임이 18일(주일) 12시15분 센타 102호 에서 있습니다.
- ♥ 2012년 메일미사 구독신청(1년) 을 받습니다. 신청은 오늘(주일)
까지 성물 부 나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한아름 상품권을 구입(5%는 빈센트회에 돌아옴)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움시다. 상품권은 추바오로[성태], 형제님 또는 김카타리나 [신자]
자매님께 구입하십시오
- ♥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합시다.
- ♥ 미사 참여시 복장을 단정히 합시다.
- * 이번달(12월) 커피 및 친 교실 청소는 중부 웨체스터 구역입니다.
다음달 (1월달)은 서부 웨체스터 구역입니다.
담당구역은 의자와 테이블을 접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 2,188.00

교 무 금 : \$ 3,390.00

교육헌금 : \$ 1,910.84

김여경(완) 안장환(완) 최고남(완) 윤용태(완) 신대철(11)

김관희(완) 신희원(완) 박종문11-4) 송계원(완) 김동현(완)

박효순(완) 이덕성(완) 추인숙(완) 서진협(완)

알자이머스 치매(Alzheimer's dementia)

요즘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치매라고하면 뇌의 기능저하가 와서 인지와 정서를 무능하게 만드는 장
애이다. 따라서 무슨 생각이나 의사결정, 기억력에 장애가 오고, 나아가서
는 행동, 성격, 그리고 대인관계에 장애까지 일으킨다. 치매는 무슨 신체
적 질환이나, 뇌에 손상이 생겼을 때 오기도 하는데 뚜렷한 병리형상이
없이 오는 치매를 알자이머스 치매라고 한다. 알자이머스 치매는 드물게
는 50세 전에도 올 수 있지만, 주로 노년에 오고, 75세가 넘으면 발생확
률이 높아진다. 알자이머스 치매에는 아직까지는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서히 악화될 뿐이다. 무슨 약, 치료, 또는 치매 방지방
법이 여기저기서 소개되고 있는데 상태를 좀 서서히 진행시킨다는 보고
는 있지만, 아직은 그 어떤 것도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긍정
적인 사고, 신앙생활, 규칙적인 운동 등 이 치매가 오는 것을 늦추거나,
이미 발생했으면 서서히 진행시킨다고 한다. 예전에 내가 노인 환자들을
치료할 때 할아버지 한분이 치매에 걸린 82세 된 할머니를 모시고 오셨
다. 할아버지는 덩지도 않은 날인데 얼굴에서 땀을 연상 닦아내는 모습이
몹시 지쳐 보였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마구 욕을 퍼붓고 있었다. 나
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저분도 예전에는 의욕도 있었고, 누구를 사랑도
했을 터인데...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것도 하느님의
뜻인가? 하면서 치매에는 불가항력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할아버지
의 말에 의하면 할머니는 아주 조용하고, 살림만 하던 분인데 지난 몇 년
전부터 기억력이 감퇴되면서 성격이 사나워졌다고 한다. 이제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 욕이고, 대소변도 아무데서나 본다고 하신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양노원에 보내자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불쌍해서 차마 그럴 수
가 없다고 하시면서 무슨 약이 없느냐고 애원을 하신다. 할머니보다도 할
아버지가 어찌나 불쌍하게 보이던지...사실 치매는 본인보다 주위사람, 물
론 치매에 걸린 사람을 보살피야하는 가족이 더 힘들다. 본인은 자기의
상태를 파악할 지능이 이미 상실되어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잘 느끼지 못
한다. 치매는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온 가족이 함께 겪
어 나아가야만 되는 큰 과제이다. 따라서 집안에 누군가 치매에 걸리면
본인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만 된다. 누구 한사람이 질머질수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감정이 앞서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큰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해 달라는 부탁도
가족에게 미리 해 두면 좋을 것 같다.

우 몽은